

Tomb of King Muryeong, Story of 1,448 Years

1,448 years.

The time between from 523 when King Muryeong passed away to 1971 when the Tomb of King Muryeong was discovered. This video is immersive digital contents created with the historical research and imagination of experts.

武寧王陵、1,448年間の物語

1,448年、武寧王が崩御した523年から、武寧王陵が発掘された1971年までの時間です。この映像は、専門家による考証と想像によって制作されたもので、韓国で初めて6面プロジェクションマッピング(projection mapping)技術が適用されたデジタル実感コンテンツです。

武宁王陵, 1448年间的故事

1448年, 是武宁王崩殁到武宁王陵被发掘的期间, 也就是523年到1971年间所流逝的岁月。该视频是以专家的考证和想象为基础制作而成的, 是韩国首个采用6面投影映射(projection mapping)技术打造的数码写实内容。



디지털 실감 영상관

IMMERSIVE DIGITAL GALLERY



전시장소 상설전시실 1층 디지털 실감 영상관

관람시간 9:40~1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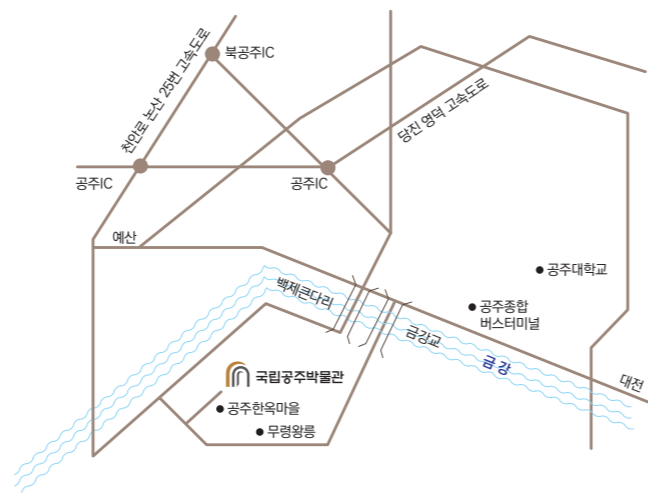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관람안내 상영시간 약 8분 / 1회 입장객 최대 10명

예약안내 박물관 누리집 온라인 사전 예약 및 현장 접수

- 이용안내
- * 7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입장합니다.
 - * 상영관 내부는 어두우니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사진과 동영상 촬영은 가능하나, 삼각대, 플래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관람 시 다소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찾아 오시는 길



국립공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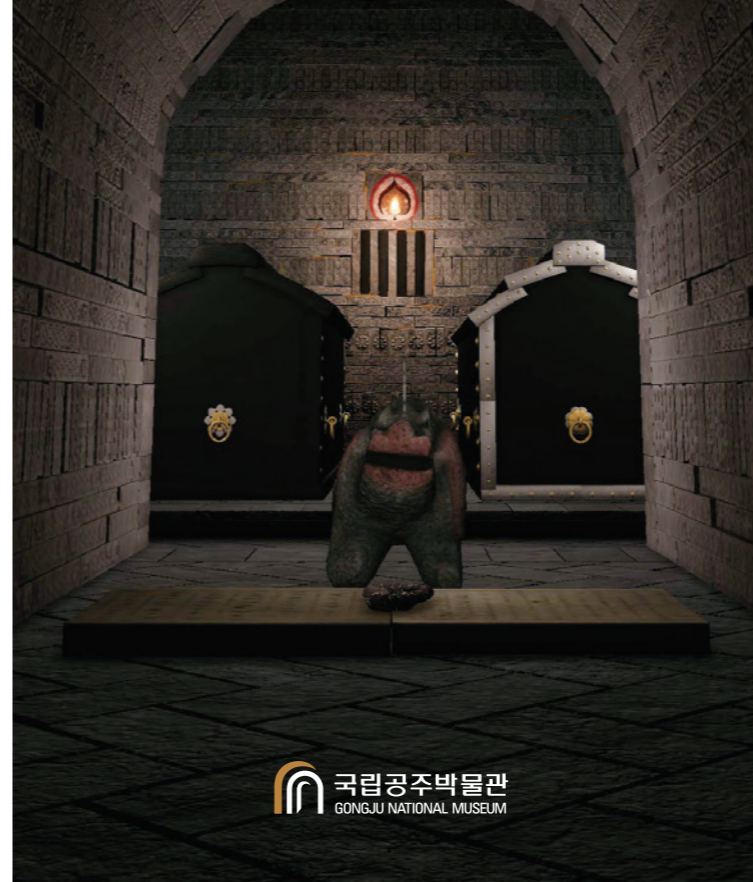
[32535] 충청남도 공주시 관광단지길34

<https://gongju.museum.go.kr>

041-850-6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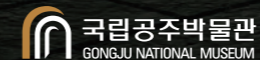
무령왕릉 1,448년간의 이야기

Tomb of King Muryeong, Story of 1,448 Years



디지털 실감 영상관

IMMERSIVE DIGITAL GALLERY



무령왕릉 1,448년간의 이야기

1,448년,

무령왕이 돌아가신 523년부터 무령왕릉이 발굴된 1971년까지의 시간입니다. 무덤이 만들어지고 발굴되기까지 그 안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국립공주박물관은 무령왕릉 1,448년간의 이야기를 좀 더 특별하게 선보이고자 합니다.

전문가의 고증과 상상을 더하여 꾸민 이번 영상은 국내 최초 6면 프로젝션 매핑(projection mapping)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실감콘텐츠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터치형 인터랙션 기능을 더하여 관람과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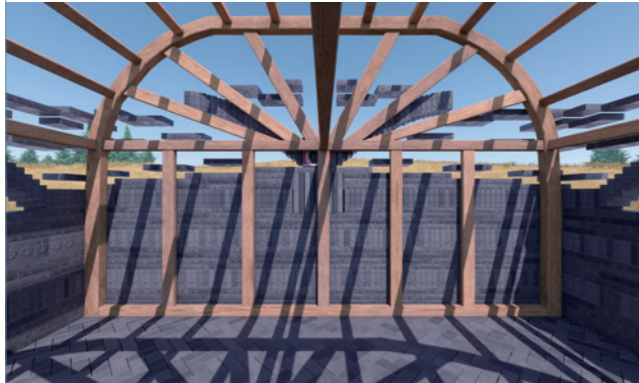
무령왕과 왕비의 영원한 안식처 무령왕릉, 1,448년간의 이야기 속으로 시간 여행을 함께 떠나볼까요?



송산리 고분군 전경

백제 최고의 벽돌무덤을 만든다

아름다운 금강이 흐르는 공주, 이곳 금강변에는 백제 웅진시기를 굳건히 지켜낸 공산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서서히 공산성을 지나며 우리를 백제 왕과 귀족들이 묻힌 송산리 고분군으로 안내합니다. 무령왕릉의 입구에 도착하면 우리는 무덤이 만들어진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523년, 무령왕이 돌아가신 해입니다. 백제 장인들은 가장 좋은 터를 잡아 암반을 깎고 바닥을 다진 후 나무틀을 세우고 연꽃무늬 벽돌을 켜켜이 쌓아 나갑니다.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견고한 무덤, 백제 최고의 벽돌무덤이 만들어집니다. 천장의 마지막 벽돌이 끼워지면 무덤이 완성되고, 무령왕의 영원한 안식처가 마련됩니다.



벽돌무덤 축조 모습



벽돌무덤 내부 모습



왕의 나무널 안장 모습



무덤 안을 수놓은 연꽃

무령왕과 왕비의 영원한 안식처

무덤이 만들어지는 동안 백제 장인들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나무널木棺의 목재로는 금송金松을 이용하고, 여기에 여러 번 옷칠을 하여 완성하였습니다. 백제 최고의 기술로 만든 장신구로 예를 다해 왕을 꾸밉니다. 왕을 모신 나무널은 무덤의 오른 편에 자리하고, 널길에는 진묘수鎮墓獸와 묘지석墓誌石이 차례로 놓입니다. 525년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은 마침내 무덤에 안장됩니다. 이듬해 526년에는 무령왕비가 돌아가십니다. 왕비는 빈전殯殿에서 삼년상이 치러진 후 529년 왕의 곁에 함께 모셔집니다. 지신地神이 오수전五銖錢을 접수하고 가창假窓으로 사라지면 무덤 안은 화려한 연꽃으로 수 놓입니다.

1,442년 시간의 흐름

무령왕과 왕비의 안식처는 기나긴 시간의 흐름을 견뎌냅니다. 진묘수가 홀로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1,442년의 시간은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벽돌의 틈은 갈라지고 그 사이로 빠져 나온 수많은 나무뿌리들은 견고하게 쌓인 벽돌들을 차례로 퇴색시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왕의 나무널이 왕비의 널을 치고, 깨문거리들이 바닥에 흐트러집니다. 흐릿한 유물 속에서 무언가 반짝거립니다. 왕의 허리띠와 큰칼, 왕비의 은잔과 베개받침을 터치해 보세요. 유물 속에서 신수神獸(용, 봉황, 사슴, 두꺼비)가 솟아 나와 진묘수와 함께 무덤 안을 유유히 날아다닙니다.



신수 등장 터치 인터렉션



무덤 안을 노니는 신수들



무덤 입구 밖을벽돌 제거 모습



송산리 고분군의 밤하늘

1971년, 무덤의 발굴

무덤 안을 노닐던 신수들은 이내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듣고 유물 속으로 재빠르게 사라집니다. 무령왕릉은 송산리 6호분의 배수로 공사를 하다 우연히 발견되어 우리 앞에 첫 모습을 드러냅니다. 발굴단이 무덤을 막은 벽돌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들어내자 무덤 안에 조금씩 빛이 스며듭니다. 무덤을 지켜낸 진묘수가 발굴단을 맞이하고, 무덤 안에서는 왕과 왕비의 관구미개를 포함하여 무려 5,200여 점의 유물이 발굴됩니다. 화면은 빠르게 무덤 밖으로 벗어나고 송산리 고분군 위로 찬란한 밤하늘이 펼쳐집니다.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보물은 1층 상설전시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